

‘불온한’ 음란서 쓴 유명 작가들

서양의 금서 이야기 — 17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음란서적은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이 즐겨 읽는 책이다.

그러나 18세기의 음란서적은 오늘의 포르노그라피와 그 성격이 달랐다.

이 때의 음란서적은 ‘순수한’ 음란서적이라기보다는 종교나 정치적 비판하기 위한 ‘불순한’ 음란서적이었다. 18세기 검열당국을 긴장시킨 불순한 음란서적 필자 가운데는 계몽사상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늘날 거리에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새벽부터 컷전을 때리는 자동차 소리가 으뜸이다. 특히 폭주족이 다니는 길목의 소음이란... 지금보다 훨씬 조용했던 40년 전만 하더라도 두부장수의 종소리가 도시의 새벽을 열었다. 그보다 더 옛날의 거리에는 어떤 소리가 있었을까? 도시와 시골, 오늘과 옛날 그 둘 사이의 소리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서양의 경우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오늘의 도시보다 옛날의 도시는 훨씬 조용했겠지만,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기준에 따라서 조용하다거나 시끄럽다고 한다. 18세기에 장-자크 루소는 파리를 소음과 먼지의 도시, 여자가 정절을 모르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 사는 곳이면 시끄럽고, 다른 곳에 비해 좀더 활발한 곳이 더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 일인가보다.

“한손으로만 읽을 수 있는 책”

물이 전염병을 옮기고, 몸이 젖었을 때보다 말랐을 때가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하여 16세기와 17세기에는 목욕이 사라졌다. 18세기에 목욕이 부활했다. 따라서 18세기 파리의 새벽 어둠을 가르는 첫 소리는 주로

목욕탕 종업원의 외침이었다.

“물이 뜨겁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목욕탕이 생기기 전에는 각종 행상인이 먼저 새벽을 열었다. 생선, 닭이나 오리, 신선한 쇠고기나 소금에 절인 고기, 마늘, 꿀, 양파, 샐러드, 치즈나 버터... 뮤지컬이나 영화 <올리버>를 본 사람은 이같은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침 먹고 풍-너프 다리를 걷는 귀부인은 머리에 깃털을 꼽아 자기들끼리 소속을 밝히는 소매치기의 표적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상인들의 외침을 들었다. “개양귀비꽃 사세요” “개털 깎아요”. 이같은 외침과 함께 새로 나온 노래 등이 마차 수레바퀴 소리와 뒤섞이는 곳, 각종 간판이 소리 없이 사람의 눈길을 끄는 곳, 그 곳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험담·악담·유언비어와 함께 금서가 유통되고 있었다.

18세기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종교, 국왕, 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위험한 시대였다. 가브리엘 페노가 《분서처분을 받은 중요한 책의 비판적, 문학적, 서지학적 사전》(1806)에서 금서의 성격을 크게 세가지로 나눈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종교적 주제의 금서는

무신론, 유신론,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 완전한 이단, 가톨릭 범위에서 나왔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교리를 다룬 책이다. 정치적 주제의 금서는 일반적인 정부의 본질, 특별히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어떤 정부에 속한 몇 개 부서를 다룬 것이다. 끝으로 도덕적인 것은 덕이나 악덕, 도덕의 교육을 다루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의견으로 가득 찬 것, 산문이나 시로 쓴 부도덕하고 음란한 글이다.

그러므로 특히 장-자크 루소가 《고백》에서 “한손으로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한 것은 마지막에 분류된 “부도덕하고 음란한” 산문이나 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문학 작품이 그렇듯이, 금서도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독자의 글 읽기를 통해 의미가 풍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어느 한 부류에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18세기 초부터 널리 배포된 《세 명의 사기꾼에 대한 논고》는 예수·모세·모하메드·아말로 추종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기꾼이자 부정직한 정치가라고 비판한 책인데, 이 책은 스킨라 철학의 형식을 부정하면서 물질주의를 퍼뜨렸기 때문에 가톨릭 교리를 부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것을 배경으로 태어난 절대주의의 밑둥까지 허무는 작품이었던 것이다.

금서를 통칭 ‘철학책’이라 해

18세기에는 모든 책이 ‘철학책’이었다. 심지어 음란서적까지도! 1776년, 렉스의 서적상 위베르 카쟁은 금서를 취급한 죄로 바스티유에 수감됐다. 그를 심문하던 검찰관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영수증마다 ‘철학적 상품’이라고 언급된 것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질문을 받고 카쟁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이 표현은 서적상들 사이에서 금지된 서적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적상과 그 고객 사이에서 ‘철학적’이라는 말은 경찰에게는 ‘금지해야 할’ 또는 ‘나쁜’이라는 말과 같았다. 서적상

은 볼테르·루소·디드로·돌바크 같은 계몽사상가의 철학서적과 《갑옷입은 신문장이》《계몽사상가 테레즈》《수녀원 안의 비너스》《샤르트뢰 수도원 문지기 동 부그르 이야기》 같은 음란서적이거나 증상비방문을 함께 포장하고는 ‘철학서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동업자나 독자에게 보냈다.

음란서적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18세기에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음란서적을 지칭하는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은 19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18세기 말까지 음란서적은 ‘순수한’ 음란서적이거나 종교나 정치를 비판하기 위한 ‘불순한’ 음란서적이었다(음란서적에 ‘순수’와 ‘불순’을 붙이는 이유를 독자가 이해해줬으면). 그리고 그 시대의 음란서적은 그 나름대로 시대정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18세기 계몽사상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때그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들도 음란서적을 썼다. 볼테르는 《철학사전》에서 여러 모로 물의를 빚을 내용을 말했다. <오를레앙의 처녀>라는 시를 썼다. 디드로는 여성이 머리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생식기, 아니 성기로 경솔하게 말한다는 《경솔한 보배》를 썼고, 미라보는 《들춰진 커튼》 따위의 음란서적을 썼다. 이들은 자기가 발견한 원리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혁명기까지 열심히 금서를 추적했지만, 영국에서는 18세기 내내 나쁜 관행을 뿌리뽑아 나갔다. 책을 벌하기 위한 형집행자도 점점 할 일을 잃었다. 분서의 관습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적은 없지만, 그 효력에 대해 믿음을 잃어가는 가운데 서서히 사라졌다.

고문과 법적 시련이 점점 사라졌듯이, 책을 태우는 만행도 사라졌다. 18세기가 흘러가는 동안, 불길에 들어간 책보다 그것을 피한 책이 훨씬 많았음을 볼 수 있다. 1720년 2월 12일, 영국의 상원은 종교를 거스르는 책을 고발했는데, 그것이 18세기 영국에서 불길에 들어간 종교서적으로는 마지막 책이었다. 조셉 홀이라는 왕실 경호원이 지은 《히그스 선생의 즐거운 논점에 대해 자연의 빛으로 삼위일체의 3신론을 옹호하기 위한 진지한 대답》은 “삼위일체의 이론과 모든 계시종교를 대담하고 불경건한 태도로 우습게 다뤘다”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영어권 최초로 외설성 때문에 유죄판결 받은 책

물론, 영국 정부가 출판의 자유를 무조건 허용했다는 말은 아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1726년에 《걸리버 여행기》를 개인적으로 인쇄 출판해 물의를 빚었다. 법원·정당·정치가를 매섭게 풍자한 그의 소설에서 (오늘날 인터넷에서 우리와 친근한) ‘야후’ 족을 만날 수 있다. 후이념의 합리적이고 절제된, 한마디로 그 시대의 이상인

‘숭고한’ 생활과는 달리 야비하고, 정욕에 움직이는 야후족은 인간의 모습을 빼닮았다. 말을 닮은 후이념과 그들의 노예로서 인간을 닮은 야후 사이에 긴 관찰자 걸리버는 ‘뒤집힌 세상’을 통해 모든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 같다. ‘뒤집힌 세상’은 근대 서양의 보편적인 주제이긴 해도, 스위프트의 풍자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18세기에 나온 이 풍자문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한 이야기다. 이 작품이 주목을 받아서일까, 일찍이 1704년에 내놓은 《인류의 보편적 발전을 위해서 쓴 부질없는 이야기》가 교황주의자(로마 가톨릭 교도)와 비국교도를 놀렸다는 이유로 1734년에 로마 교황청의 금서 목록에 들어갔다.

《걸리버 여행기》가 나온 이듬해, 런던의 출판업자이자 서적상인 에드먼드 컬(E. Curll)은 《수녀원 안의 비너스》를 발간한 죄로 법의 추적을 받았다. 이것은 영어를 쓰는 세계에서 외설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컬은 법의 심판을 받은 뒤에도 유명 작가들의 공격을 받았다. 《로빈슨 크루소》를 쓴 다니엘 디포는 그의 출판물을 공격했다. 영국에서 최초로 글만 써서 먹고 산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는 호머의 서사시를 번역해서 1만 파운드의 큰 돈을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종교적인 이유와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상처를 입었다. 그가 적으로 생각한 사람들 속에는 출판업자 컬도 들어 있었다. 포프는 자신을 비난하는 비평가나 시시한 작가들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가짜-서사시’(mock-epic) 《던시아드》(1728)를 써서 대응했는데, 컬도 거기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데 컬이 법적 제재를 받은 원인이라 할 《수녀원 안의 비너스》는 프랑스 책이었다.●